

JOURNAL CONTEMPORARY ART

Vol.4

Autumn 2010
Quarterly
Art Magazine

Special Feature _ 젊은 미술인의 초상

People _ “예술도 행정도 교육도 모두 삶으로 소급되지”_김정헌

Review _ 수보드 굽타의 현재를 읽는 한 전망

Trend _ 변화하는 창작환경시스템을 만나다

Serial _ 차가운 예술창작, 왜곡된 미술애호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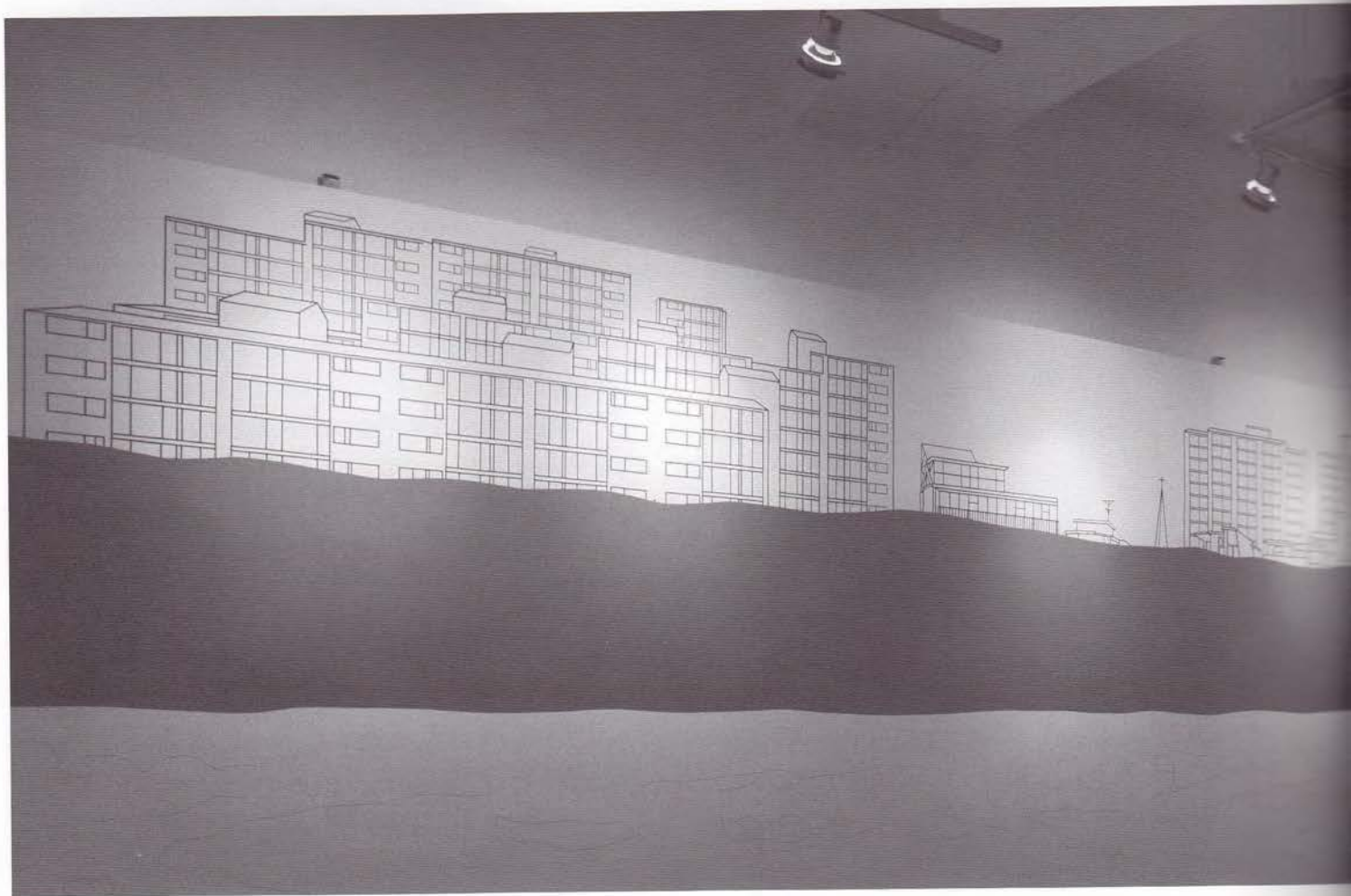
2010년 여름, 4개월 간의 기록

당신과 나의 삶이 이항할 때展 | 2010.9.10 ~ 10.10 | 일민미술관

황진영 독립큐레이터

홍익대학교에서 조소, 동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했으며 뉴저지 주립대 Rutgers University 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Children's Museum of the Arts (첼시,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으며, 대안공간 루프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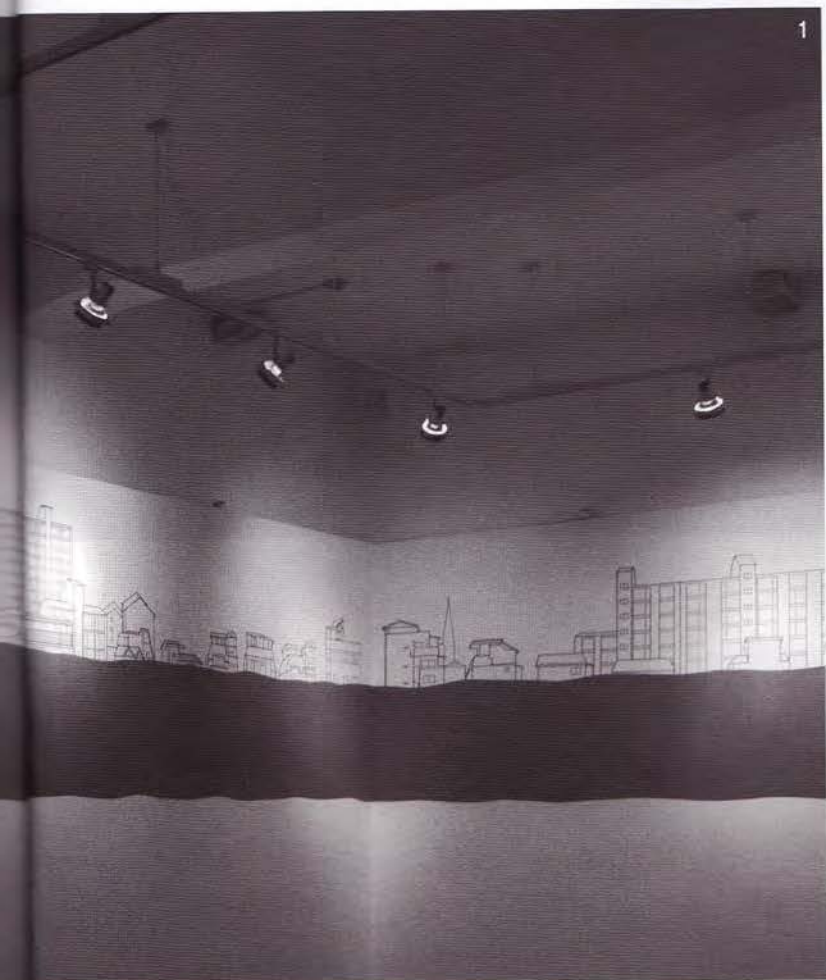
현재, 서울과 뉴욕을 기반으로 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전시로는 미디어 퍼포먼스 전시 《Audio Visual Matrix전》(2002, Space Im-A, 서울)과 2010년 동아미술제 전시공모 수상작인 《당신과 나의 삶이 이항할때전》(2010, 일민 미술관, 서울)이 있다. Ott G.Ocvik의 『미술의 언어』(아트나우 출판사)를 공동 번역했다.



기획

지난 6월 2일의 일이다. 당시 나는 뉴욕에서 <5Cities, 5Curators 전>을 준비 중이었다. 동료 큐레이터들과 회의를 끝내고 돌아와 지원해 볼만한 전시 기금을 인터넷으로 찾아 봤다. 서울 전시 담당자였기 때문에, 한국 기금 위주로 찾아 보니 우연히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공모 페이지를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미술관에서 직접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 공모가 드문데다가 지원 조건도 상당한 편이어서 관심이 갔다. 하지만 6월 11일이 마감이라면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미련 없이 사이트를 닫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안 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몇 달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물음, 언젠가 전시로 풀어보리라 마음먹고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심어두고 있던 그 물음을 다루면 될 것 같았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큐레이터들과 국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이슈는 반복되는 화두였다. 새로울 것 없는 주제지만, 전시기획과 관련해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는 처음이었다.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 접근하고 싶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간 느껴온 것들, 내게 생겨난 변화를 되돌아 봤다. 오늘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고 있고, 이동에 따른 변화를 쿨하게 받아들이며 카멜레온처럼 적응해 간다. 그러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사실상 이동에 따른 경험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갈 뿐. 세계화 시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경계를 넘는 순간 크나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내가 그랬고 이야기를 나눠 본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경계를 넘을 때 일어나는 변화란 무엇일까? 삶의 이동을, 그것이 공간적이건 시간적이건 문화적이건 간에 '이향'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전시 기획은 시작되었다.





1. 김지은, <표류하는 풍납토성>, 수성페인트, 라인테이프, 300x2400cm, 2010
2. 박지현, *Uptown, Uptown*, 향, 금분, 나무, 510x110x88cm, 2008



2

섭외

이전까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던, 기껏해야 낙서로만 끄적여왔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작가를 섭외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미처 개념화 되지 않은 생각들로 작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걸 아직 현실화 될지 어떨지 모르는 공모 아닌가. 그간 <5Cities, 5Curators전>을 위해 오랫동안 작가를 찾아 온 터라 작가 선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4명의 작가를 추렸다. 작가들에게 당선이 되어야만 열릴 전시라는 말로 우선 운을 떼고, 전시 주제를 설명했다. 다행히 작가들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로버트 리 작가의 경우에는 5월 말 석사 졸업전에서 만난 것이 처음일 뿐,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주제가 흥미롭다며 선뜻 응했다. 한국에 있던 탐리, 박경근 작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보니 박지현 작가만 이전부터 잘 알던 작가였다. 가장 극적으로 섭외가 된 것은 김지은 작가였다. 로버트리, 탐리, 박경근, 박지현 작가 네 사람을 섭외한 뒤 한 사람을 더 찾고 있었는데 선뜻 이 사람이다 싶은 작가가 없었다. 계속 기획안을 쓰면서도 한편으론, 끝끝내 마지막 작가를 찾지 못한다면 지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6월 6일 김지은 작가를 발견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블로그를 통해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와 이오밍 레지던시에 있던 작가와 급하게 연락을 했다. 전화도 잘 안 터지는 지역에 있던 김지은 작가에게 이메일을 남겨두고 기다리던 시간, 그 초조함이 기억에 남는다. 김지은 작가가 전시에 응하는 순간 전시기획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딸깍'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지원서를 마무리 해 보냈다. 축하카드가 쇄도하는 꿈을 꾸었다. 최종 2인 가운데 한 명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자료를 보충해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로 향할 짐을 꾸렸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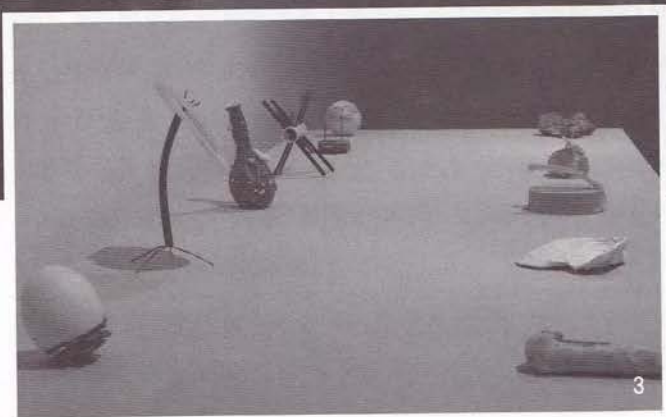
작가들을 만나고 새로운 작품을 접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종종 그런 경험을 한다. 새로운 작품 앞에서는, 뭐랄까 막 새로 산 음악 CD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음식점에서 주문한 낫선 음식을 입에 막 집어넣을 때처럼 온 신경이 하나로 집중되고 호기심 반 기대감 반에 심장 박동이 살짝 올라간다.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차례 차례 작가들을 만났다. 포트폴리오에 비해 실제 작품이 더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지만 이번 작가들의 경우 실제 작품들이 더 좋았다. 작가들을 만나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은 이번 전시와의 관련성이었다.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전시 섭외를 결정하게 된 각각의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나의 판단이 맞았는지 궁금했다. 이를테면 탐리 작가는 프랑스 레지던시 이후에 왜 그렇게 급격히 작품이 변했는지, 로버트 리 작가가 말하는 이탈된 오브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박경근 작가의 개인적 악몽이 어떻게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집단 경험과 연관이 되는지, 도시환경을 관찰하는 김지은 작가의 시선이 왜 원주민의 시선과 다른지,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서 나라는 주체를 새롭게 지각하는 박지현 작가의 경험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모든 질문 이면에 '이항'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작가 개개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내가 찾은 해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어쭙잖은 작가론보다는 작가의 직접적인 진술을 담고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작가와 그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아가 '이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펼쳐 볼 수 있는 책을 내기로 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혼자서는 벅찬 프로젝트였다. 한 번도 책을 내 본 일이 없어 겁도 없이 덤볐던 것이다.

설치

일민 미술관의 전시 공간은 생각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컸다. 공간 구성을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짜 봤다.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거닐면서 느껴보고, 다시 도면을 고쳤다. 중점을 둔 것은 작가 개개인에게 마치 개인전처럼 충분한 공간을 주고 그 안에

서 관객이 직접 어떤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공간 속에서 작품들이 서로 충돌하며 혼돈 속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게 하는 그러한 구성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의 경우, 워낙 각각의 작품들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사이 사이 관객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두고 싶었다. 한 지인은 지나치게 안전하게 간 공간 구성이라고도 하셨다. 어쩌면 오랫동안 한국 미술계를 떠났다가 복귀해서 가지는 첫 전시인 만큼 나도 모르게 무난하고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1층과 2층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공간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지 생각해 봤다. 1층은 직접적으로 '삶의 장소'의 이동과 그에 따른 경험을 다루고 있는 박지현, 김지은 작가의 작품을 배치한 반면 2층은 공간보다는 '문화', '의식', '시간', '의미' 등을 다루고 있는 탐리, 로버트 리, 박경근 작가의 작품을 배치했다. 1층 초입은 긴 골목 같은 공간을 구성하고, '뜬금없이' 김지은 작가의 작업을 맞닥뜨리도록 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관객이 풍납토성에서 작가가 느낀 그 기묘함을 교감할 수 있었으면 했다.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대다수의 관객이 작품을 따라 걸어가며 느끼기 보다는 시각적 대상으로 감상하고는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버렸다. 애초에 나의 판단 착오였고 설치 방식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작가에게 충분한 제작 기간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과 더불어... 박지현 작가는 구조물을 천장에 매다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 꼬박 하루를 고생했지만, 다음날 다른 해결책을 가져와 설치를 해냈다. 박경근 작가의 본래 작품은 영화였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맞는 영상 설치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의논했다. 80분이라는 시간을 공간 속에 다섯 개의 채널로 펼치자고 합의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탐리 작가는 *Creative Commons Series*를 다섯 작품으로 막 완결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시리즈의 모든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가끔 큐레이터가 아직 한창 발전 중인 작가의 시리즈 가운데 일부만을 전시 주제에 맞춰 전시하고, 소모시키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 행태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한 한 시리즈 전체의 맥락을 충분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을 걸고 보니, 아트 페어의 부스 같은 모습이었다. 왜 모든 작품을 보여줄 수 없는 지, 전체 전시 구성뿐만 아니라



3. 로버트 리, N-E-I-S Version 5.0, 혼합매체, 가변크기, 2007 (부분)
 4. 탐리, *Creative Commons Series*, 전시전경

작가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참 의견을 나누고 작가도 4점의 작품만을 거는데 동의했다. 로버트 리 작가는 가장 마지막에 디스플레이를 끝냈다. 아주 미묘한 결들까지 세심하게 부각시켜야 하는 작품이라 탐리 작가의 강렬한 이미지와 분리시키는데 좀 신경이 쓰였다. 작가 본인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현장에 걸린 탐리 작가의 그림을 보더니, 전시할 작품을 즉석에서 바꿨다. 애초에 걸기로 한 사진 작업은 뺐다. 탐리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경쟁도, 조용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리뷰

전시를 열고 난 뒤 여러 사람에게 전시가 어땠는지 묻고 다녔다. 지인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다양한 매체에도 실렸지만 전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살벌하리만치 날카로운 비평을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한국 미술계에서는 당사자의 작품 (혹은 전시)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아직은 서로에게 껄끄러운 일인 듯 보였다. 가장 궁금했던 건 소위 '일반 관객'의 반응이었다. 요즘은 기사 하나를 읽을 때도 댓글을 더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그곳에는 미처 활자화 되지 않은, 때로는 황당무계하지만 때로는 더욱 진실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해 우연히 맞닥뜨린 한 네이버 블로그의 리뷰. 너무나 반가웠다.

“...기획자의 의도는 투명하리만치 선명하다. transposition 이란 단어를 이항으로 번역하고, 오늘날 이 개념이 이산이건 이민이건 이주건 이동이건 간에 중심을 상실한 이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그 단어란 적응이나 지향이 아닌 존재방식의 임시적 변이일 뿐이고, 이로 인해 변화된 주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아 자체의 분열이자 타자화된 경험이다. 이 경험이야말로 관습적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추동하는 의미로 이항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선택의 조건.

기획자의 의도는 이렇게 현대의 젊은 작가들의 삶의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다. 기획자가 정의한 바의 이항도 설득력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작업과 예술가로서의 삶에 끼치는 궁극적 영향이 결여되어 있다. 전시는 단순히 물리적 '이항을 경험한' 작가들의 작업을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전시장에서 느꼈던 물리적 공백보다 더 큰 공백은 기획의 의도와 작품이 유기적인 의미 관계를 서로 내포한다기 보다 나란한 나열에서 오는 작품과 감상 사이의 공백이다. 관객은 나란히 흐르는 두 줄기의 강 사이에서 침투의 틈을 찾지 못했다...” (<http://blog.naver.com/freecree> 에서 인용)

도록

도록은 김지은 작가의 현장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실제 전시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전시 후에 제작해야 했다. 인터뷰를 담겠다는 야

심찬 계획 탓에라도 전시 이전에 나오기는 이래저래 힘들었을 것이다. 사실 작가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질문을 만들고 인터뷰를 한 뒤에 녹취해서 요약 정리·번역을 맡기고, 디자인을 거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이었다. 나중에는 인터뷰를 다 들어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번역이었다. 인터뷰라는 글의 특성상 더욱 그랬을 것이다. 같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내용이지만, 한글로는 전체 맥락이 연결되고 이해가 되던 것이 영어로 읽으면 내용의 흐름이 단절되고 이 질문이 왜 뜬금없이 나오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영어 감수를 맡은 뉴욕의 친구들은 번역자를 탓했다. 그러나 번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어 자체가 갖는 구조적 차이 때문에, 또한 미묘한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한글 원문에서 보이지 않던 논리의 빈틈이 영문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었다. 결국 인터뷰 질문을 뽑고 진행하고 정리한 내게도 책임이 있었다. 인터뷰 번역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가 해주신 조언은 영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다시 교정 질문을 하여 내용과 구조를 보완한 뒤 한글 원문을 수정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었다. 수궁이 가는 말이었다. 대화를 녹취하고 압축, 정리해서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로, 10여 페이지의 내용이 3페이지로, 그리고 한글이 영어로 바뀌었다. 마지막 결과물을 보고 인터뷰 당사자들조차 낯설어 할 법 했다. 더 이상 혼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였다. 뒤늦게 팀을 꾸렸다. 전문 편집자를 구하고 영문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완할 네이티브 작가를 구했다. 낱기로 한 아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내야 하듯, 출판하기로 한 책이니 제대로 완성하고 싶었다.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 안에 책을 끝내기만을 바랄 뿐이다.

귀환

이제 다시 미국으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전히 도록은 진행 중이다. 뉴욕에서 도록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 <5Cities, 5Curators전>을 준비할 것이다. 정확히 4개월 전 그 자리로, 당시 준비하던 전시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지낸 4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내가 전시를 준비하며 겪은 모든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의 이항의 경험이었던 셈이다. ◼